



감사하는 마음

<살전 5:18>

지금부터 356년 전 영국의 청교도 102명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향해 떠난지 66일 만에 동해안에 있는 프리머드(Plymouth)항구에 도착하여 신대륙에 첫발을 내디딘 날이 바로 1620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후 오늘날 날까지 미국 국민들은 이들을 순례의 조상 (Pilgrims Fathers)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상륙한 땅은 황무지요,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흑한과 굶주림을 못이겨 그 해에 반이 죽었습니다. 살아 남은자들은 천막 속에서 간신히 그 해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고국에서 갖고 온 씨를 뿌려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첫번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유래했고 그후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날을 전통적으로 지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유정신 때문에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그후 16년 되던해인 1636년에 자유 정신과 신앙을 배양해낼 명문 하버드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01년에는 예일대학 1746년에는 프린스턴대학을 차례로 세우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냈

정

진

경

입니다. 그런데 위의 명문대학들은 모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인간사회를 이룩하여 살고 있는 미국사람들의 정신적 기반은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의 자유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두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이고 둘째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전 작은 일이전 잘못을 느낄때 미안한 생각을 갖게되며 적은 도움이나 친절을 받고도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됨은 인간이 지닌 아름다움이요. 자랑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사실과 남의 호의를 고맙게 느끼는 마음은 인간만이 갖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미안은 종교적인 회개에서 생기고 친절에 대한 깊은 느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에서 생깁니다.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차를 멈춤으로 손님들이 이리저리 넘어졌다가도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만 하면 손님들은 오

히려 운전사의 노고를 동정하게 됩니다. 또 적은 호의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을 기쁘게 하며 기쁨지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중에도 풍부함을 느끼며 순경에도 역경에도 감사할줄 알면 그는 행복해집니다. 여수반란 사건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추도식에서 그를 위로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은 답사를 하였습니다.

1. 나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 허다한 성도중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3. 6남매중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것을 감사한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동시에 순교하게 됨을 감사한다.
5. 전도하다가 총살됨을 감사한다.
6. 미국갈 준비를 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가게됨을 감사한다.
7. 내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로 삼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8.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것을 감사한다.
9. 이런 기쁜 마음 여유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 강 단 □

10.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손복사님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첫째로 남의 은혜를 잊지않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남에게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내가 준것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은 남의 호의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때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하나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남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족한줄 아는 마음입니다. 족한줄 아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나 족한줄 모르는 사람은 풍부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근심하며 삽니다. 고로 인생의 즐거움은 세상 물질의 풍부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정신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줄 알아야 한다”(딤후 6:7-8)고 교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활에서 항상 자족을 배워 비천한데 처했을 때나 풍부한데 처하였을 때나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빌4:10-13)자족 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면 밝은면을 보며 살지 언짢고 그늘진 면을 보지 않습니다. 자족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반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만과 원망이 많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막신 장사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짚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날이 개도, 비가 와도 근심이 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이 개면 큰 아들이 나막신을 못 팔 것이고 비가오면 둘째 아들이 짚신을 팔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족을 모르는 인간을 풍자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노인 모양으로 음지만 보고 양지를 못보고 살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불평의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보며

<p. 17쪽으로>